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들 예상보다 채용 줄었다...ADP 자료
- S&P Global: 미 3월 서비스 신규 주문 늘었다
- Bloomberg: 미 무역적자 3개월 연속 확대...수출 보다 수입이 많은 탓
- Bloomberg: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금리 어느 기간 동안은 5% 상회 필요”

[미국 금융]

- Bloomberg: 30년 주택 모기지율 6.4%... 7주째 연속 하락중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가격, 올해 1조 달러 떨어지고 2025년부터 반등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 WSJ: 인공지능, 정말로 인간의 일자리 진짜 뺏을 수 있나
- TechCrunch: Stanford 인공지능 보고서로 본 AI 산업 동향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들, ‘맞춤 상자’ 기계로 과대 포장 문제 해결한다
- Bloomberg: FedEx, “배송 네트워크 통합해 40억 달러 비용 절감할 것”
- WSJ: 기업들, 최선의 정리하고 전략 ‘저울질’
- CNN Business: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서 클라우드 서비스 반독점 조사 받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 Fewer Jobs Than Forecast, ADP Data Show

미 기업들 예상보다 채용 줄었다...ADP 자료

- 미 기업체 임금 상승이 줄고 있는 데다 3월에 미 기업들은 예상보다 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수요 열기가 일부 식고 있는 신호다.
- ADP와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 랩 공동 조사에 따르면 2월에 상향 조정치로 26만1천건 이었으나 3월에는 14만5천건으로 크게 줄었다.
- 고용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레저와 환대 산업, 무역, 교통, 유틸리티인 반면에 줄어든 분야는 제조, 금융,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다.

Bloomberg 기사

S&P Global: U.S. services PMI 미 3월 서비스 신규 주문 늘었다

- 오늘 수요일에 발표된 구매 관리자 설문 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은행 부문의 최근 혼란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말에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이면서 3월에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S&P Global U.S. Services PMI 지수가 2월에 50.6에서 3월에 52.6으로 상승해서 작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S&P Globa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Sian Jones는 “서비스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주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따르면 고객 수요 증가, 주문 증가, 신규 고객 확보를 전했다.

S&P Global 원문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for a Third Month to \$70.5 Billion 미 무역적자 3개월 연속 확대...수출 보다 수입이 많은 탓

- 미국의 2월 무역적자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확대되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자료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격차는 2.7% 증가한 705억 달러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월에 소비자 제품과 자동차, 자본재 수출이 줄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Mester Says Rates Should Rise Above 5%, Stay for Some Time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금리 어느 기간 동안은 5% 상회 필요”

- Loretta Mester 총재는 올해 금리가 5% 상회 시킨후에 이를 일정기간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금리 시책 계속)고 말했다. 인플레이 통제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확한 금리 수준은 물가 압력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그는 최근 금융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연준이 0.25% 금리를 인상한 결정을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금융 혼란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는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Falls to Seven-Week Low of 6.4%
30년 주택 모기지율 6.4%... 7주째 연속 하락중

-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4주 연속 하락했지만 주택 구입 신청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 모기지 은행가 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계약 금리는 3월 31일 종료된 기간 중 6.4%로 지난 7주 기간중 최저치로 5 베이시스 포인트하락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관련 모기지 신청 지수는 3.5% 감소했다.
- 모기지 금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하락했다. 한편 해당 MBA의 재용자 신청 지수는 5.4% 하락했지만, 전반적인 모기지 신청 건수도 3주간 최저치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me Prices Seen Rebounding After an Expected \$1 Trillion Plunge This Year
미 주택 가격, 올해 1조 달러 떨어지고 2025년부터 반등한다

- 주택시장 분석업체 Pulsenomics가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전문가와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택 시장의 가치가 2022년 말 47조 9천억 달러에서 올해 46조 9천억 달러로 약 1조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향후 3년 안에 반등이 가속화되며 2027년에는 60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올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 가치 손실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2022년 이후 마이애미를 제외한 모든 미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될 것이며, 동남부의 대도시들이 강세를, 서부 도시들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로봇과 인공지능]

WSJ: The Robots Have Finally Come for My Job
인공지능, 정말로 인간의 일자리 진짜 뺏을 수 있나

- 수세기 동안 기계를 통한 자동화가 광범위한 인간 일자리 감소와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ChatGPT와 같은 생성적 AI가 정말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다.
- 그동안의 기계 자동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했던 것과 달리, 생성적 AI는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Open AI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ChatGPT와 같은 생성적 AI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취약 직종은 수학자, 통역사, 웹 디자이너, 언론인이었다.
- 하지만 이러한 생성적 AI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객관적인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AI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거짓 정보가 퍼지게 될 수도 있다.
-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력”의 가장 큰 가치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쓰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답변의 질을 판단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WSJ 기사

TechCrunch: The takeaways from Stanford's 386-page report on the state of AI

Stanford 인공지능 보고서로 본 AI 산업 동향

Stanford 인공지능 연구소가 새 보고서를 통해 AI학계 및 민간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변하는 AI 산업에 대한 정보와 예측을 수집했다.

1. AI 개발은 지난 10년 사이 학계 주도에서 산업 주도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2. 그동안의 벤치마크에서 AI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3. AI의 훈련과 개발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4. 2012년 이후 “AI 관련 사건 및 논란”이 26배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5. AI 관련 채용 공고가 늘고 있지만,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다.
6. 정책 입안자들은 AI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쓸모없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7. AI 관련 투자는 일시적으로 멈추는 추세이지만, 지난 10년간 이미 천문학적으로 투자가 늘어났다.
8.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응답자의 70%가 AI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미국은 35%.

TechCrunch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Retailers Tackle Cardboard Overload With Made-to-Fit Boxes**
소매업체들, '맞춤 상자' 기계로 과대 포장 문제 해결한다

-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전자 상거래 배송 시 물건이 작은데도 커다란 상자를 써야 하는 과대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목에 맞는 크기의 상자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
- 이 기계는 배송 상품의 치수를 잰 후 골판지를 자르고 접어서 딱 맞는 상자를 만들며, 배송 라벨을 붙이고 밀봉한다. 이로써 소매업체들은 물품 포장에 드는 상자 골판지와 충전재의 양을 줄였고, 품목 당 평균 무게는 38% 줄어 배송 비용도 절감되었다.
- 최근 몇 년간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 속에 맞춤 상자를 만드는 기계의 기능과 속도가 크게 향상되어, 노동력 격차를 매우고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도 줄었다.

WSJ 기사

Bloomberg: FedEx Targets \$4 Billion Cost Cuts by Merging Delivery Networks
FedEx, "배송 네트워크 통합해 40억 달러 비용 절감할 것"

- FedEx가 이번주 수요일 수십 년 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지상 배송 네트워크와 Express 배송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단일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025년까지 40억 달러에 이르는 영구적인 비용 절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FedEx의 경쟁사인 UPS가 운전자들에게 FedEx의 두 배 이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edEx가 수익률에서 UPS에 밀려왔는데, 이것이 UPS가 효율적인 단일 전송 네트워크를 가진 덕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한편 FedEx는 최근 몇 달 동안 고위 관리직의 10%를 해고하는 등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 통합 결정도 지난 6월 새 CEO가 취임한 이후, 주당 배당금을 늘리고 임원 급여 규칙을 개편하며, 자본 지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WSJ: The New Rules of Layoffs
기업들, 최선의 정리해고 전략 '저울질'

- 골드만삭스부터 아마존까지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정리해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력 감축 과정에서의 고통과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한꺼번에 vs. 조금씩 천천히:** 한번에 대규모 감원을 할 경우 주요 부서나 인력을 의도치 않게 잃을 위험이 있다. 소규모 감원이 오래 이어질 경우 내부적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 **Zoom 해고 통지:**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해고 통지를 위해 사무실 출근을 요청하는 것이 더 잔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신 Zoom 등 화상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주중 vs. 금요일:**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통념과 달리 주중 수요일에 통지 후 업무 시간 동안 인사 담당자들과 상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는 추세이다.
- **충분한 설명:**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사업 상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해고가 발표되었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 **퇴직금:** 직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에 최대한 관대할 필요가 있다.
- **해고 대상 결정:** 한때 연공서열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 기업들은 재직 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SJ 기사

CNN Business: Amazon, Microsoft could face UK antitrust probe over cloud services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서 클라우드 서비스 반독점 조사 받는다

- 영국의 미디어 및 통신 규제 기관인 Ofcom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수요일 성명을 통해 당국에 반독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 Ofcom에 따르면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데, 5~10%를 차지하는 구글이 가장 근접한 경쟁사이다. 이에 구글 클라우드가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 Ofcom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자사 클라우드에서 타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려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고객들이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왔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금값 온스당 2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육박"

"달러화 약세 영향"...사상 최고치 2천75.47달러 돌파 주목

금값이 온스당 2천 달러를 돌파해 13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일(현지시간)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1.93% 오른 2천22.20달러에 마감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노동부가 2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를 공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